

부자가 자취여중생 성폭행 “인륜파괴”

96.7.9

이웃 주방장도 가세... 끝내 임신중절 수술

어린 소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습 성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8일 세들어 사는 집 주인과 아들 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중생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 이 소녀는 또 이들 탓에 임신해 지난 6월초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여중 1년생인 ○(14)양은 4월초부터 한달 남짓 자취를 하는 집 주인 ○(72)씨에게 여러차례 성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이 소녀는 또 ○씨의 아들(30)에게도 1차례 성폭행당하고, 4월 중순께는 평창 M식당 주방장에게 성폭행당하는 등 두달 동안 마을 어른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 소녀의 할머니(65)가 손녀의 말을 듣고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 소녀의 아버지(40)는 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어머니(33)는 집을 나가, 할머니가 소녀를 돌보고 있다.

한편 충남 아산시 ○(11)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아산경찰서는 8일 입원 치료중인 ○양의 의식이 호전됨에 따라 ○양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곱아무개(20)씨 등 14명의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여자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에게도 성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아산/김종화 하석, 박종생 기자